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쳐서!**  
관광사찰의 포교

현재 문화재관광료를 징수하는 '관광사찰'은 60여 곳에 이른다. 관광료를 받지는 않지만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전통사찰 역시 관광객들의 주요 방문지가 되기 마련이어서, 대부분의 전통사찰이 이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 관광사찰들은 관광객들의 나들이 장소로 전락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처이자 중생들을 부처님께 인도하는 사찰 본래의 모습을 잃고 있다. 사찰의 관광 상품화로 인한 위상 격하, 관광료 수입으로 야기된 수행가풍의 변질, 개발로 인한 사찰 주변환경의 파괴 등의 폐해를 불러오기도 했다.

이들 스님들이 사찰이 관광지와 됨에 따라 '수행환경의 파괴'라는 피해의식만 가졌을 뿐, 포교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불교알리기 역할 못하고**  
**나들이 장소로 전락위기** 이와 관련 조계종 포교원의 한 관계자는 "사찰의 관광지화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찰을 포교도장으로 활용하려는 스님들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이수한 포교사나 예비역군법사들을 각 사찰의 상임포교사로 상주시키거나 전문 가이드를 두고 사찰탐배 요령이나 기본적 불교교리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안내한다면 새로운 불법 홍보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영어 및 일본어 홍보물 제작, 외국인 수련회 실시, 성보박물관의 건립 등도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물론 국제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일 것이다.

관광사찰이 관광객들의 바람직한 관광을 유도하면서, 이들에게 자연스런 불교 알리기를 시도한다면 사찰을 찾는 사람들을 불교 입문자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포교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때다.

김재경 기자(jkim@buddhania.com)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후원회ARS 전화: (02)700-0108 후원금계좌: 189-13-03909-3  
은행지로 번호: 8003478번 국민은행: 827-25-0020-943  
신한은행: 069-01-238223

## 종단 민원상담실 필요하다

도심사찰 증축·복지시설 건립등 불사마다 마찰

### 권역별 자문번호인단 구성도 대안

최근 들어 건축불사와 관련 해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세금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찰과 자치단체와의 마찰 또는 건축불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불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찰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민원상담실 설치 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계종의 경우 종단자문번호가 있으나 종단의 주요 소송 대행과 종헌·종법의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것에 머물러 있다.

서울성북구 전통사(주지 동명)는 증축공사 완공을 앞두고 인근 일부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사찰은 선수권 모임인 전통회와 일반인들의 선수권도장으로 재공하기 위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3백평 규모의 도심포교당 건축공사를 지난 해 10월 시작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도심포교당 건축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목적으로 지붕에 원형사 8각9층석탑(국보 48호)의 상위 3층과 상륜부를 실물 크기(7m)로 설치했다.

주민들은 지붕이 없는 불탑을 문제삼아 지난 10월 '알고권과 조망권의 침해'를 받아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가 나가지 않으니 탑을 철거하라'며 성북

구청에 진정서를 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집은 전동사와 30m 가량 떨어져 있고, 전동사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도 성북구청은 "민원이 있으니 당사자들이 협의해 조정하라"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원주 사사의 경우도 지난 해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인근 주민들의 탄원지침에 반대에 부딪혔다. 민원의 내용이 공사를 중지시킬만한 사유는 아니었지만, 이 사찰의 주지스님은 이후 지역 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고려해 동네발전기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내공을 내주고 주민들을 진정시켰다.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초사는 지난 3월과 9월 시설수용자 8명의 주민세 청구서를 받았다. 예전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담당자가 자치단체에 찾아가 항의했다. 그러나 장애인시설로 등록하지 않아 세수 확대 목적에 어쩔 수 없이 고지서를 발송했다는 공무원의 반응에 할 말을 잃었다. 담당공무원이 세



“불탑 철거” 민원 골치 주민들의 민원으로 불사 완공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성북동 전통사 전경. 주민들은 전통사 불탑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을 침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민들의 집은 전동사보다 높은 곳에 있어 설득력이 없다. 사진=고영태 기자

조계종 동안거 결제 2천여 수좌 용맹정진

불기 2543년 동안거(음력 10. 15~2000. 1. 15)를 맞아 해인총림 조계총림 덕숭총림 고불총림 등 조계종 총림을 비롯 비구선원 42곳, 비구니선원 30곳, 해외선원 2곳 등 80여 선원에서 2천여명의 수좌들이 22일 일제히 안거에 들어갔다. 이날 조계종 중정 해암스님과 방장스님들은 결제 법어를 내려 용맹정진을 당부했다. (해암 중정 법어 3면)

### 해암중정 “율원 활성화” 당부

정대스님 당선인사 원당암 예방

조계종 새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7일 해인사 원당암에 주좌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암스님은 또 "유아교육과 군포고 등 교육 및 포교사업에 역할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원당암 영화실에서 마주한 두 스님은 사중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덕담을 주고받았다. 해암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만큼 인력을 갖고 하시는 언저리라도 총무원장직을 내용을 각오로 소신껏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대스님은 "중정스님의 말씀대로 언저리라도 총무원장직을 맡아 소신껏 해주겠다"고 화답했다.

해암스님은 이어 "정부나 타 종교가 불교를 앞장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을 못하기 때

### 고도보존법 다시 입안

임진출의원 국회제출

고도(古都) 경주 보존을 위한 특별법이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임진출의원(경주출)은 15일 '고도보존법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고도보존 및 정비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 2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와 관련 "매장문화재의 발굴비용을 개인 또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현행 문화재보존법은 위한 소

### 태고종 총회의원 53명 선출

12월 16일 개원식...평균연령 낮아져

태고종은 16일 서울 중무처 회의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를 열고 지난 9월 6일부터 20일까지 각 교구 총회별로 실시한 선거에서 당선된 선거 담당 선거에 대한 직부심사를 실시. 지역구 48명과 직능직 5명 등 모두 53명의 당선자를 확정. 공했다. (당선자 명단 2면)

53명중 초선위원은 18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9대 총회에 비해 평균 연령이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 남은 40~50대가 38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고령 의원은 임자광스님(77세·부산총무원 부원장)이다.

10대 총회 개원식은 12월 16일 오전 10시 선암사 대웅전, 10대 총회의원의 임기는 2000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4년이다. 이경숙 기자

### 생명나눔 10월 대법회

현행·최장 유언 사후장기기증 서약

○일시: 11월 27일(토요일) 오후 1시  
○장소: 진각종 총림 전선여자중·고등학교  
○주최: (사)생명나눔실천회·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734-8050(생명나눔실천회) (02)713-0136(진각종)

### 구산선문 참선 기행

12월 : 사자산문(법흥사)·보덕사

12월에는 자장율사가 문수보살 진신을 친견하기 위해 강원도 세경을 돌며 사리를 봉안하고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적멸보궁을 건립했다는 사자산문 법흥사를 찾아갑니다. 구산선문의 하나로 전국의 수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을 정도로 선종을 크게 떨쳤던 법흥사는 최근 선문총창설소의 옛 자취를 되찾기 위한 중흥불사가 한창입니다.

법흥사 인근 요선정에서는 마애여래좌상(강원도 유형문화재 74호)도 친견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단종의 애사가 어려웠는 보덕사도 참배합니다.

○출발: 12월 5일(일) 오전 7시·조계사앞  
○회비: 3만5천원(중식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디피아(www.buddhania.com)에서 보세요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대한불교계과인회

마음속 자연을 그려보세요!

무지개 빛 단풍이 어우러진 시골넷가-  
졸졸졸 냇물 흐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단풍잎 주위 말리던 그때-  
책갈피속에 가지런히 꽂아두고 옛 추억 떠올리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던 시절-  
그 맑고 깨끗한 자연을 생각하며 작은 추억을 나누어 보세요.

**포항제철**  
http://www.posco.co.kr